

## 7월 인권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관련 추천자료 (장애인권, 장애인 교육권, 자립생활)

### 도서



**학교 가는 길** : 서진학교, 17년의 기다림과 장애인권 이야기

김정인 [외] 함께숨 | 책풀 | 2022

\* 인권도서관 청구기호 : 371.9 학14ㄱ

2017년,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을 꿇은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 당시 장애인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장면이다. 특수교육 시설의 설립이 매번 좌절되어 장애 아이의 부모가 죄인처럼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람들의 폭발적 응원과 지지를 이끌었다.

『학교 가는 길』은 17년간의 소외와 편견, 차별의 아픔을 딛고 ‘서진학교’가 설립되어 2020년 개교하기까지 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의 단단한 용기, 좌절과 성취의 순간들을 담아낸 과정이자 그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우리 사회에 용기 있게 발화한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또 다른 여정이다.



**전사들의 노래**: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우며

홍은전 지음 | 오월의봄 | 2023

\* 인권도서관 청구기호 : 339.2 흥68ㄴ

이 책은 2021년 12월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시위의 기원을 더듬어보는 기록이다. 몇 십 년간 지속해온 매일의 투쟁을 통해 거대하고 견고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균열을 낸 싸움꾼 6인(박길연, 박김영희, 박명애, 이규식, 박경석, 노금호)의 생애가 인권기록 활동가 홍은전의 글 속에서 뜨겁게 빛을 발한다.

이 여섯 개의 생애사들은 장애인이 승강장에 서기까지, 시설에서 혹은 집구석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기까지 걸린 22년이라는 시간을 감각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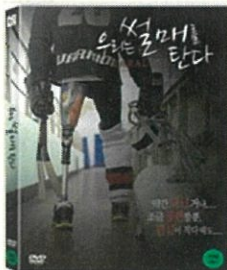
### 영화(DVD)



**어른이 되면** (2018, 장혜영 감독, 전체관람가, 98분)

\* 인권도서관 청구기호 VD 362.2 - 14

13살이 되던 해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 수용시설에 보내져 가족과 18년간 떨어져 살았던 막내 혜정과 둘째언니 혜영의 동거를 그린 다큐멘터리다. 이 작품의 연출자인 혜영은 동생 혜정과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신과 혜정의 일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우리는 썰매를 탄다** (2014, 김경만 감독, 전체관람가, 70분)

\* 인권도서관 청구기호 VD 796.087 - 2

빙판을 가르며 갈라지는 칼날소리와 선수들의 기합소리가 아이스링크를 가득 채운다.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는 아이스하키 선수들, 바로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국내 등록 선수는 단 40명, 저마다의 사연과 장애를 지녔지만 빙판 위에서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 실업팀 창단 3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 진출권을 따낸 선수들은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드라마를 써 내려 가는데...